



걸어서 느끼는 오오노산책



2017년도 미야마목장동아리
교토부립대학 + 세트난대학 학동 팀

이 애플릿에 대하여

2017년 10월 발행

이 리플릿은 미야마 목장 학생들이 작성했습니다. 1999년부터 목장 학생들은 카야브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에서 유명한 미야마초우오오노쿠(美山町大野区) 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금은 교토부립대학 학생과 세트난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을 지역의 사람과 협력하면서 학생이 실제로 작성하여 오오노쿠의 공원을 목질화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노쿠의 매력을 더 전하고 싶어 이 리플릿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손에 들고 오오노쿠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ccess

대통령으로 오는 경우

JR 산인호선「와치역 (JR 山陰本線「和知駅」) 부터 난탄시영 버스 오오노선
JR 와치역 (南丹市営バス大野線「JR 和知駅」)에서 오오노 (大野) 까지 20분

자료 오는 경우

교토시내부터 … 국도 162 호선 (国道 162 号線) 교토 슈산가도 타카오방면 (京都・周山街道高雄方面) 을 북상하여 아가개 (安掛) 부터 오오노 (大野) 까지 15 분

고속도로부터 … 「소노바IC(園部IC)」를 내리고 부도 19 호선으로
「히요시초우(日吉町)」·「카구라사카토네루(神楽坂トンネル)」를 넘어
「미야마초우(美山町)」까지 40 분



문의처 : 0771-75-0159 (오오노야 : 大野屋)

발행자 : 오오노쿠 / 협력 : 오오노쿠의 여러분, 난탄시 지역 부흥 협력단



이

그리운 길

템망구 (天満宮)

경내 가운데 씨름판이 있어 여전에는 거기서 아이들의 씨름대회가 열려 주민 모이는 곳이었어요. 주위는 초록으로 둘러싸이고 차분합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는 미야마목장 사굴의 학생들이 작성한 놀이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약 15 분

칼럼
노노무라닌세이 와
스가와라노미치자네

스가와라노미치자네(菅原道真) 가 다자이후(太宰府)로 떠나려갔을 때 미치자네의 아이는 신 하 밑에서 산에서 수 행하고 쌓아 케이노우호우사(慶能法師)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오노를 찾아 “노노무라(野々村)”의 성을 밟히고 개척했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에가인 노노무라닌세이는 그의 후손입니다.



리도 (里道)

마을 사람들이 만든 밭두렁 길에서는 오오노의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앞이 안보이는 굽은 길은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할거예요.



그리운 논 풍경

일본의 옛 풍경을 오오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에 흐르는 바람은 상쾌하고 비록 도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민가와 논이 떨어진 풍경은 어딘가 그리운 생각을 품을 거예요.



아카하라에서의 조망



미야마목장 학생이 걸어서 봄주고싶은 곳을 코스 별로 픽업했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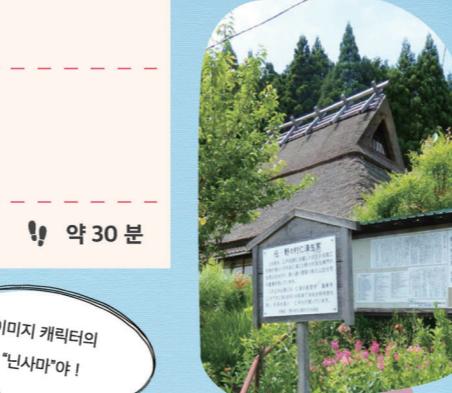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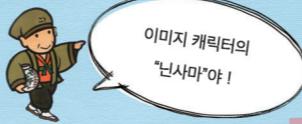
역사 길

03

대자연 길



렌조지 (蓮乗寺)



닌세이의 집 (仁清の家)

오오노에는 니치렌슈(日蓮宗) 조도신수(淨土真宗) 소토슈(曹洞宗)의 3개종파의 절이 있습니다. 세 절은 서쪽부터 순서대로 나란히하며 린서지(林昌寺)는 “우에데라” 젠새이지(善西寺)는 “나카데라” 령조지(蓮乗寺)는 “시모데라”로 불리고 있어 설날에는 지역의 사람이 신사에 참배를 간다고 합니다. 절에 가여 오오노의 역사 있는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젠새이지 (善西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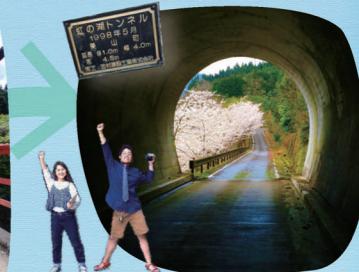


린서지 (林昌寺)

논에 둘러싸인 경치



부도12호선에서 유리강까지는 논에 둘러싸인 해방감 있는 경치가펼쳐집니다. 유리강변의 길에서는 6월경 부터 반딧불이 볼 수 있습니다.



니지노코 터널루 (虹の湖トンネル)

오노바시를 건너 비탈을 오르면 길이 81 미터의 니지노코 터널이 보여옵니다. 노무 조용한 곳이며 손을 두드리면 소리가 아주 울립니다. 터널의 고요함 속에 소리를 울려보지 않겠습니까?



건너편 도로의 전망

니지노코 터널을 빠져나와 오오노쿠의 거리도 여기서 보면 마치나 디오라마 같은 느낌입니다. 눈을 거듭하면 띠지붕의 집이 보입니다.

그리운 마음에 돌아가자

풍족한 자연과 따뜻한 사람이 사는 동네 오오노구

교토부 난탄시 미야마초우의 서부에 위치한다 오오노구는 풍부한 산들에 둘러싸여 유리강이 횡단하게 흘러가고 있어 계절의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